

『黃帝內經』과 『周易』의 陰陽論 比較 - 「繫辭傳」을 중심으로 -

慶熙大學校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¹ · 韓醫學古典研究所²
白裕相^{1, 2 *}

Comparison of The Eumyang(陰陽) Theory betwee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and *Juyeok*(周易) - Focused on Gyesajeon(繫辭傳)-

Baik You-sang^{1, 2 *}

¹Dept.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 :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Eumyang(陰陽) theory betwee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and *Juyeok*(周易)·*Gyesajeon*(繫辭傳) written by Gongja(孔子),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Hwangjenaegyong*(黃帝內經) and the position of Eumyang theory in the ancient academic society can be clearly understood.

Method :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Eumyang theory i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and *Juyeok*(周易)·*Gyesajeon*(繫辭傳) are categorized and analyzed comparing both texts.

Results & Conclusion : *Hwangjenaegyong*(黃帝內經) and *Juyeok*(周易) all recognized Eumyang movement as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principle of the change of the univer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um(陰) and Yang(陽), the key of harmonization of them is to keep and practice the virtue of each others.

The plentiful expression of *Juyeok*(周易)·*Gyesajeon*(繫辭傳) about the relationship of Eumyang is helpful to understand and apply the concepts of Eumyang to daily life. The other hand, *Hwangjenaegyong*(黃帝內經) as medical text, concentrates upon the explanation about the movement and circulation of Gi(氣) between Eum and Yang.

Key words : *Hwangjenaegyong*(黃帝內經), *Juyeok*(周易), Eumyang(陰陽) Theory, *Gyesajeon*(繫辭傳)

I. 序 論

陰陽論은 天地 宇宙가 運動 變化하는 原理로서 東洋學問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韓醫學에서도 예외 없이 우주와 인체의 생성 변화를 설명하는 기본 원리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陰陽이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 陰陽의 상호 관계, 陰陽의 시공

* 교신저자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Tel : 02) 961-0326. E-mail : baikys@khu.ac.kr
접수일(2013년 1월 21일), 수정일(2013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2013년 2월 14일)

간적 변화 양식 등에 대해서 『黃帝內經』 등 초기 醫書에 담긴 의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先秦 시대 훨씬 이전부터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醫學이 당시의 역사, 철학과 사회, 문화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관계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先秦시대 주요 전적 중에서 陰陽論의 내용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典籍이 『周易』이라 할 수 있으며, 의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그러나 『周易』의 卦辭, 爻辭 등의 내용은 간략하면서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그 陰陽論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孔子가 여러 卦의 爻辭를 다시 풀어서 설명한 『周易·繫辭傳』의 記述을 바탕으로 그 속에 담겨있는 陰陽觀을 살펴보았다. 『周易』은 그 내용이 이미 西周 초기의 전적에 출현하고 있으며²⁾, 春秋戰國時代를 거치면서 체계화 되었다. 이 시기에 『周易』이 占書의 용도로부터 哲理로 인식되는 전환점에서 孔子의 역할이 컸으며, 이는 곧 義理易說의 창립을 의미한다³⁾. 이 과정에서 孔子의 정리 작업과 몇몇 후대의 내용이 결합되어 현재의 『易傳』⁴⁾이 구성되었는데 그 중 각 卦의 爻에 대한 孔子의 직접적인 해석을 담고 있는 것은 「文言傳」과 「繫辭傳」의 일부⁵⁾뿐이다. 이 중 「文言傳」은 乾卦, 坤卦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러 卦에 걸쳐 孔子의 義理的 해석을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繫辭傳」이다. 孔子의 해석은 『周易』의 占辭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함축적 陰陽論을 실제 人間事에 적용하여 설명함으로써 각 卦가 내포하고 있는 陰陽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였다. 『周易』 각 卦가 陰爻와 陽爻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經文에는 陰陽의 字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⁶⁾, 주로 「繫辭傳」에서 陰陽의 剛柔와 상호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전국시대 말기 陰陽 사상의 발전이 『易傳』 속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⁷⁾.

기존의 연구에서는 『黃帝內經』의 陰陽論이 일반적으로 『周易』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⁸⁾⁹⁾ 『黃帝內經』이 乾坤 중심의 『周易』의 陰陽觀을 더욱 발전시켰다고 보고 있다¹⁰⁾¹¹⁾. 그러나 『周易』의 陰陽觀에 대하여 대부분 陰陽 간의 剛柔 대립과 감응 그리고 통합 변화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¹²⁾¹³⁾¹⁴⁾, 人事를 중심으로 義理的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에는 卦象의 陰陽 편차와 乾陽 주도의 陰陽觀으로 양자를 비교하거나¹⁵⁾, 體用論¹⁶⁾ 또는 表裏의 관점으로¹⁷⁾ 『黃帝內經』의 陰陽 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이 있다. 또한 심귀득이 『周易』에서의 陰의 역할을 韓醫學의 수렴과 결실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조화의 주체로서 陰을 상징한 연구가 陰陽 간의 관계를 좀 더 질적으로 심화시켜 바라본 것으로서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¹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周易』의 각 卦를

1) 주역과중국의학(양력 저, 김중렬 역. 서울. 법민문화사. 2007. pp.73-78.)에서는 陰陽學說, 藏象學說, 氣化學說의 세 방면에서 『周易』이 『黃帝內經』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2) 廖名春, 康學偉, 梁韋茲. 周易哲學史. 서울. 예문서원. 1994. pp.56-57.
3) 廖名春, 康學偉, 梁韋茲. 周易哲學史. 서울. 예문서원. 1994. pp.86-88.
4) 十翼 중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序卦傳」, 「雜卦傳」을 제외한 「象傳」, 「象傳」, 「繫辭傳」, 「說卦傳」, 「文言傳」 등이 孔子 당대와 직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5) 孔子가 여러 卦의 爻辭에 대하여 설명을 가한 「繫辭上傳」의 八章과 「繫辭下傳」의 五章이다.

6) 文載坤. 陰陽五行論의 展開에 관한 研究(I). 哲學研究. 1989. 13. p.31.
7) 권영규. 음양오행의 동의학적 인식. 東西醫學. 1994. 19(3). pp.20-27.
8) 華琮. 周易對中醫理論的影響. 中醫研究. 2012. 25(6). p.12.
9) 尹暢烈. 음양오행론의 발생과 그 응용. 2006. 19(4). p.214.
10) 崔波, 李愛峰. 試論周易陰陽學說對中醫學的影響. 鄭州大學學報. 1999. 32(2). p.57.
11) 이정재. 陰陽五行論의 형성과 이의 응용연구. 한국문화연구. 2003. 7. p.185.
12) 권영규. 음양오행의 동의학적 인식. 東西醫學. 1994. 19(3). pp.20-27.
13) 文載坤. 陰陽五行論의 展開에 관한 研究(I). 哲學研究. 1989. 13. pp.32-33.
14) 송갑준. 음양오행설의 사유체계. 人文叢叢. 2001. 14. pp.116-117.
15) 賀娟. 從周易到內經的陰陽觀念流變.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8. 31(12). pp.811-814.
16) 張祐彰. 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의 陰陽體用觀에 대한 試論.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6). pp.73-85.
17) 尹暢烈. 음양오행론의 발생과 그 응용. 2006. 19(4). pp.214-215.
18) 심귀득. 주역에서 음양의 조화에 관한 연구. 2004. 4.

陰爻, 陽爻의 구조 중심으로 파악하여 取象하였으므로 義理學說을 바탕으로 陰陽 간의 다양한 관계들을 풍부하게 해석하여 설명해내기에는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繫辭傳」의 孔子 爻辭 해석에 담긴 陰陽觀을 분석, 정리하여 韓醫學 最高의 醫論書인 『黃帝內經』에 담긴 陰陽論과 비교함으로써, 醫學의 입장에서 陰陽을 바라보는 것과 『周易』에서 人事를 중심으로 陰陽을 바라본 것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당시 醫學과 그 哲學의 배경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本 論

1. 研究方法

「繫辭上傳」의 八章과 「繫辭下傳」의 五章에 기술된 孔子의 각 爻辭에 대한 해석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제시하고¹⁹⁾, 그 아래에 卦 전체의 의미, 孔子 해석의 의미와 의의를 분석하였다. 卦 전체의 의미는 해당 爻辭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孔子가 기존의 爻辭 설명으로부터 發明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孔子의 해석을 각 爻의 陰陽의 특성을 바탕으로 분석 정리하여 분류하였다. 『黃帝內經』의 陰陽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를 앞서 『周易·繫辭傳』을 분석한 것과 비교 고찰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卦辭, 爻辭 등의 설명에 필요한 注釋은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周易』의 원문과 『周易傳義』에 포함된 程子の 『易傳』, 朱子の 『本義』에 국한하였으며, 각주에 첨부한 「繫辭傳」 원문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懸吐完譯周易傳義(成百曉譯註, 1998)의 懸吐를 병기하였다.

2. 『周易·繫辭傳』의 爻辭 解釋

pp.6-8, p.12.

19) 번역은 懸吐完譯周易傳義(成百曉譯註,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를 주로 따르되 부분적으로 亞山の 周易講義(金炳浩, 서울, 小康出版社, 1999)를 참고하였다.

『周易·繫辭傳』에 나오는 中孚卦 九二爻, 同人卦 九五爻, 大過卦 初六爻, 謙卦 九三爻, 乾卦 上九爻, 節卦 初九爻, 解卦 六三爻와 上六爻, 咸卦 九四爻, 困卦 六三爻, 噬嗑卦 初九爻와 上九爻, 否卦 九五爻, 鼎卦 九四爻, 豫卦 六二爻, 復卦 初九爻, 損卦 六三爻, 益卦 上九爻 등에 대한 孔子의 설명에 대하여 『周易』의 原文과 程子の 『易傳』, 朱子の 『本義』의 注釋 등을 참고하여 의미를 살펴보았다.

1) 中孚卦 九二爻

“우는 鶴이 陰地에 있으니 그 새끼가 和答하는구나. 내가 좋은 버슬을 가져서 내가 너와 함께 戀戀해한다.”라 하니,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君子가 집에 거처하여 말을 냄이 좋하면 千里의 밖에서도 옹하니 하물며 가까운 자에 있어서라. 집에 거처하여 말을 냄이 좋하지 못하면 千里의 밖에서도 거스르니 하물며 가까운 자에 있어서라. 말은 몸에서 나와 백성에게 加해지며, 행실은 가까운 곳에서 발하여 먼 곳에 드러난다. 말과 행실은 君子의 樞機이니, 樞機의 발함이 榮辱의 주체이다. 말과 행실은 君子가 天地를 動하게 하는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²⁰⁾.

中孚卦는 巽上兌下(☱☴)로서 속이 비어 있는 形象이다. 中孚의 孚를 信으로 풀어서 君子로부터 天地에까지 이르러 應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²¹⁾.

20)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42. “鳴鶴이 在陰이어늘 其子和之로다. 我有好爵하여 吾與爾靡之라하니 子曰君子居其室하여 出其言善이면 則千里之外應之하나니 況其邇者乎아. 居其室하여 出其言不善이면 則千里之外違之하나니 況其邇者乎아. 言出乎身하여 加乎民하며 行發乎邇하여 見乎遠하나니 言行은 君子之樞機니 樞機之發이 榮辱之主也라 言行은 君子之所以 動天地也니 可不慎乎아.”

21) “中孚以利貞, 乃應乎天也”(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70.)이라 하여 하늘의 뜻에 닿아 있다고 하였으며, “象曰澤上有風中孚, 君子以議獄緩死.”(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71.)라 하여 그 믿음은 君子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利涉大川, 乘木舟虛也) 獄事를 의논 해주거나 죽임을 완화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라를 教化할 수 있는 것이다.(說而巽,

九二爻에서 鶴(陽)은 높은 뜻을 품고 있는 君子의 象이며 울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높은 뜻이란 결국 天下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²²⁾. 鶴이 陰에 있다는 것은 二爻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원래 五爻가 君主의 자리인데 中孚卦에서는 반대로 九二가 좋은 벼슬을 가지고 있고 九五가 이를 보고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²³⁾. 言行을 단지 樞機²⁴⁾라고 하여 信의 본질을 말한 것은 아니나, 그것이 결국 榮辱의 차이를 낳는 관건이 된다.

孔子가 부모 자식 사이의 情으로부터 미루어 君子의 言行이千里 밖의 百姓에게 미칠 수 있다고까지 말한 것은, 中孚卦가 속을 비움으로 인하여, 獄事를 의논하거나 죽임을 완화하는 단순한 것만으로도 믿음을 얻을 수 있으며 오히려 그것이 天地에 크게 영향을 주어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九二가 좋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래 兌卦에서 中의 자리(陰)를 얻었기 때문이다²⁵⁾.

2) 同人卦 九五爻

“남과 함께 하는 것이 먼저 울부짖다가 뒤에 웃는다.”라 하니,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君子의 道가 혹은 나아가고 혹은 머물며 혹은 침묵하고 혹은 말하나,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니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는구나. 마음을 같이 하는 말이 그 향기가 난초와 같구나²⁶⁾.

同人卦는 乾上離下(☰☲)로서 火는 明哲함을, 乾은 強健함과 天地에 통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象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마음(志)을 같이 하게 된다. 들(野)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남과 같이 하여 큰 내를 건너니 亨通하다 하였고 貞하여 吉하다는 것은²⁷⁾ 離卦의 陰爻가 志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²⁸⁾.

程子は 『易傳』에서 九五爻에서 六二와 만나기를 바라는 것을 사사로운 情으로 보고 울다가 웃는 것도 君子의 본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²⁹⁾. 이에 비하여 孔子는 “其利斷金”과 “其臭如蘭”으로 표현하여 卦 전체의 뜻을 살렸는데 즉, 六二는 “同人于宗吝”으로 同人의 본뜻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九五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九五가 비록 “或出或處或默或語”의 有유부단함이 있으나 이를 오히려 君子의 權道로서 파악하고 날카로움의 陽과 부드러운 향기의 陰을 兼備하였다고 표현한 것이다. 孔子가 中直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강함을 내세우기보다는³⁰⁾ 현실(六二의 吝함)을 바꾸기 위하여 權道를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六二가 爻象만으로 보면 비록 사사로움에 얽매어 있으나 전체 同人卦에서 유일한 陰爻로서 건실함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九五의 中直함도 근본적으로 이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3) 大過卦 初六爻

“初六은 흰 띠풀로 깎 것이니 허물이 없다.”라 하니,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땅에 깔아놓기만 해도 되거늘 띠풀로 깔았으니 무슨 허물이 있

孚乃化邦也)

22) 孔子는 繫辭傳에서 “君子之所以動天地也”(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42.)라 하였다.

23) “九五, 有孚擊如, 无咎.”(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77.)에 대하여 天下의 사람이 戀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나 九二의 好爵에 대한 九五의 應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24) 지도리와 기틀로서 여기서는 단지 행동의 형식 또는 간단한 능력 정도를 의미한다.

25)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74. “【本義】鶴在陰謂九居二, 好爵謂得中.”

26)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43. “同人이 先號而後笑라하니 子曰君子之道或出或處或默或語나 二人同心하니 其利斷金이로다. 同心之言이 其臭如蘭이로다.”

27)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369. “同人于野亨, 利涉大川, 利君子貞.”

28)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371. “彖曰同人柔得位, 得中而應乎乾, 曰同人.”,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373. “文明以健, 中正而應, 君子正也. 唯君子爲能通天下之志.”

29)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380. “【傳】五君位而爻不取人君同人之義者, 蓋五專以私曜應於二, 而失其中正之德, 人君當與天下大同, 而獨私一人, 非君道也.”

30)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381. “象曰同人之前, 中直也.”

오리오. 삼가함이 지극한 것이다. 띠풀이란 물건은 하찮으나 쓰임은 중요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삼가면서 나아간다면 잘못되는 것이 없으리라³¹⁾.

大過卦는 兌上巽下(☱☴)로서 연못(說)이 나무를 滅하여 기둥이 흔들리는 象인데³²⁾ 두 陰爻가 本末에서 약하기 때문이며³³⁾, 또한 陽爻는 속에서 과하여(剛過而中) 지나친 象이다. 그러나 때가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때인 만큼³⁴⁾ 자신은 흔들려 지나침이 있더라도 쓰일 곳이 있으면 형통할 것이니 결과적으로 이롭다. 즉, 남보다 크게 과시하는 것 자체가 지나침인데³⁵⁾ 이것이 능력과 덕으로 발휘되면 聖인이 될 수도 있으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깨끗한 君子의 象이 나타나기도 한다³⁶⁾.

初六은 두 陰爻 중 하나인데, 上六은 지나침에 빠져 자신을 滅하여 凶하나 卦의 大義로 보면 큰 허물이 없는 것인데³⁷⁾, 初六은 九二의 動함의 지나침과³⁸⁾, 九三의 凶함³⁹⁾ 시작에서부터 견제하는 것이므로 자신을 낮추어 깔개가 되는 것으로 이미 그 자체로 허물이 없다. 또한 白茅를 썼으니 남에게 과

시하는 것에 반하여 오히려 소박하므로 더욱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한다. 象에서 단지 “藉用白茅, 柔在下也”라고만 한 것을, 孔子는 无咎를 더 풀어서 단지 까는 것만으로도 가하거늘 띠로 하였으니 삼가는 것의 지극함이라 하였으니, 大過卦에서 자칫 誇示로 흐를 수 있는 것을 初六이 견제하고 막아서 결과적으로 卦 전체의 亨通을 이끌어낸다고 본 것이다.

4) 謙卦 九三爻

“수고로운 謙이니 君子가 終이 있으니 吉하다.”라 하니,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로워도 伐하지 않으며 功이 있어도 德을 드러내지 않음은 두터움이 지극한 것이니, 功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낮춤을 말한 것이다. 德은 盛함을 말하고 禮는 공손함을 말하니, 謙은 공손함을 다하여 그 지위를 보존하려는 것이다⁴⁰⁾.

謙卦는 坤上艮下(☷☶)으로서, 땅 속에 산이 있는 象으로 전체적으로 형통하니 軍자가 마침을 두기 때문이라 하였다⁴¹⁾. 이와 같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天道가 下濟하고 地道도 卑하여 坤體를 지향하는 謙의 성질 때문인데⁴²⁾ 이로써 君子는 존귀하고 빛나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德을 가지게 된다⁴³⁾. 험준한 산을 아래에 포용한 坤體는 만물을 稱하여 공평케 하는 中庸의 德도 가지고⁴⁴⁾ 天地鬼人 속에서 盈과 謙의 차별을 없앴다⁴⁵⁾.

31)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44. “初六은 藉用白茅니 无咎라하니 子曰苟錯諸地라도 而可矣어늘 藉之用茅하니 何咎之有리오. 愼之至也라 夫茅之爲物이 薄이나 而用은 可重也니 愼斯術也하여 以往이면 其无所失矣리라.”

32)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92. “大過棟橈, 利有攸往, 亨.”

33)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92. “【傳】大過陽過於中, 陽過於中而上下弱矣, 故爲棟橈之象. 棟取其勝重, 四陽聚於中, 可謂重矣. 九三九四皆取棟象, 謂任重也. 橈取其本末弱, 中強而本末弱, 是以橈也.”

34)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94. “大過之時, 大矣哉.”

35)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93. “象曰大過, 大者過也.”

36)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95. “象曰澤滅木大過, 君子以獨立不懼, 遯世无悶.”

37)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604. “上六過涉滅頂, 凶, 无咎.”

38)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97. “九二枯楊生稊, 老夫得其女妻, 无不利.”

39)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99. “九三棟橈, 凶.”

40)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44. “勞謙이니 君子有終이니 吉이라하니 子曰勞而不伐하며 有功而不德이 厚之至也니 語以其功下人者也라 德言盛이요 禮言恭이니 謙也者는 致恭하여 以存其位者也라.”

41)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399. “謙亨, 君子有終.”

42)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00. “象曰謙亨, 天道下濟而光明, 地道卑而上行.”

43)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02. “尊而光, 卑而不可踰, 君子之終也.”

44)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03. “象曰地中有山謙, 君子以裒多益寡, 稱物平施.”

45)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p.401-402. “天道虧盈而益謙, 地道變盈而流謙, 鬼神害盈而福謙, 人道惡盈而好謙.”

初六은 謙하기만 하여 조심히 나아가는 시작이며⁴⁶⁾ 六二의 鳴謙도 아직은 貞함으로써 吉할 수 있다⁴⁷⁾. 이에 비하여 九三은 艮象이 가로막혀 수고롭기는 하나(勞謙) 마침내 이롭이 있어 萬民이 복종하게 되는 것인데⁴⁸⁾, 六五의 君主보다 오히려 謙卦의 本體가 되며 이후의 坤卦 三爻는 모두 謙의 用事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孔子는 이를 부연하여, 九三은 수고로우면서도 六五, 上六 같이 謙으로 인해 얻은 권위만을 믿어 征伐하려 하지 않으며⁴⁹⁾, 힘쓴 결과가 있더라도 盛大하지 않아(不德) 두터움이 지극하니, 이러한 이유는 功을 가지고서 남의 아래로 처신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謙은 결국 그 지위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謙의 본질을 恭이라 본 것이다. 恭은 易地思之(恕)를 통하여 稱物平施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며 恭의 德으로 인하여 결국 “尊而光, 卑而不可踰”를 할 수 있다. 또한 謙의 본질인 恭이 九三에 있게 되는 데에는 初六과 六二의 謙하고 貞한 것이 이미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乾卦 上九爻

“亢龍이니 窪우침이 있다.” 하니,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貴하나 地位가 없고 높으나 百姓이 없으며, 賢人이 下位에 있어도 도움이 없다. 이 때문에 動하면 窪우침이 있는 것이다⁵⁰⁾.

乾卦의 上九爻는 이미 달이 차서 기우는 것과 같은 象인데⁵¹⁾ 이는 事物의 進退存亡을 몰라서 亢만

을 함으로써 地位와 百姓과 賢人을 잃었기 때문이다⁵²⁾. 귀하며 높기만 하고, 자신을 낮추는 부드러운 陰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龍은 움직일 수 없으며, 龍이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자체로 凶한 것이다.

6) 節卦 初九爻

“문과 뜰(戶庭)로 나가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라 하니,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亂이 생기는 것은 言語가 階梯가 되니, 君主가 비밀스럽지 못하면 臣下를 잃고, 臣下가 비밀스럽지 못하면 몸을 잃으며, 幾微의 일이 비밀스럽지 못하면 해로움이 이루어지니, 이 때문에 君子는 慎密하여 내지 않아야 한다⁵³⁾.

節卦는 坎上兌下(☵☱)로서 물 안에 澤(說)이 있는 것으로 지나치게 풀어지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니 天地四時의 운행과 같이 亨通하다⁵⁴⁾. 전체적으로 苦節을 경계한 것은 陰이 지나치게 경직되면 오히려 凶하다고 본 것이다⁵⁵⁾. 이것은 乾卦의 上九爻가 의욕만 앞서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다.

九二가 나아가갈 때를 알지 못하고 지나치게 절제하여 凶하거나⁵⁶⁾, 上六이 그 道가 다하여 苦節로 凶

46)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04. “初六謙謙, 君子用涉大川.”
47)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05. “六二鳴謙, 貞吉.”
48)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07. “象曰勞謙君子, 萬民服也.”
49)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10. “六五不富以其鄰, 利用侵伐, 无不利.”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11. “上六鳴謙, 利用行師, 征邑國.”
50)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45. “亢龍이니 有悔라하니 子曰貴而无位하며 高而无民하며 賢人이 在下位而无輔라 是以動而有悔也니라.”
51)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61. “亢龍有悔, 盈不可久也”,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74.

“亢龍有悔, 窮之災也.”,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77. “亢龍有悔, 與時偕極.”
52)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85. “亢之爲言也, 知進而不知退, 知存而不知亡, 知得而不知喪, 其唯聖人乎, 知進退存亡而不失其正者, 其唯聖人乎.”
53)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45. “不出戶庭이면 无咎라하니 子曰亂之所生也 則言語以爲階니 君不密則失臣하며 臣不密則失身하며 幾事不密則害成라하니 是以君子慎密而不出也하니니라.”
54) “天地節而四時成, 節以制度, 不傷財, 不害民.”(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58.)라 하여 宇宙四時의 季節과 通하므로 결국 亨通하다.
55)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56. “節亨, 苦節, 不可貞”,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57. “苦節不可貞, 其道窮也.”
56)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p.461-462. “九二不出門庭, 凶. 象曰不出門庭凶,

한 것⁵⁷⁾ 등에 비하여, 初九는 通塞을 모두 이미 알고 있어서 戶庭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⁵⁸⁾. 즉 이미 변화의 幾微를 알면서도 密하는 것은 단지 발설을 조심하여 이후의 安節, 甘節 등 用事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初九가 无咎에 그치나 節의 成敗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7) 解卦 六三爻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易을 지은 자는 盜賊이 생기는 이유를 아느냐. 易에 이르기를 “질 것이면서 또 타고 있는지라 盜賊을 오게 한다.”라 하였으니, 지는 것(負)은 小人之 일이고 타는 것(乘)은 君子의 器物이니, 小人으로서 君子의 器物을 타고 있어서 盜賊이 빼앗을 것을 생각하며, 뒷사람을 소홀히 하고 아랫사람을 사납게 대하므로 盜賊이 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보관을 허술하게 함이 도적질을 가르치며, 용모를 치장함이 淫蕩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易에 “질 것이면서 또 타고 있는지라 도적을 오게 한다.” 하였으니, 盜賊을 불러들이는 것이다⁵⁹⁾.

解卦는 震上坎下(☳☵)으로서 어려움으로부터 움직여 해방되고⁶⁰⁾ 雷雨의 작용으로 만물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은데⁶¹⁾, 나오더라도 아직 온전하지 못하므로 만약 갈 곳이 없다면 西南 坤體의 本然 자리로 돌아가서⁶²⁾ 무리와 어울려야 하며, 만약

失時極也.”

57)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66. “上六苦節, 貞凶, 悔亡. 象曰苦節貞凶, 其道窮也.”

58)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60. “象曰不出戶庭, 知通塞也.”

59)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46. “子曰作易者其知盜乎인저. 易曰負且乘이라 致寇至라하니 負也者는 小人之事也요 乘也者는 君子之器也니 小人而乘君子之器라 盜思奪之矣며 上을 慢하고 下을 暴라 盜思伐之矣니 慢藏이 誨盜며 冶容이 誨淫이니 易曰 負且乘致寇至라하니 盜之招也라.”

60)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47. “象曰解險以動, 動而免乎險解.”

61)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49. “天地解而雷雨作, 雷雨作而百果草木皆甲拆, 解之時太矣哉. 象曰雷雨作解, 君子以赦過有罪.”

가기에 합당한 곳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는 것이 좋다⁶³⁾.

六三의 경우는 陰柔로서 九二의 貞한 권위⁶⁴⁾와 九四의 得衆⁶⁵⁾에 기대고 장차 난관에서 벗어나 小人을 물러나게 하는 六五 君主의 역할⁶⁶⁾까지 하려고 하니, 이는 小人이 君子의 그릇만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六三이 스스로 君主처럼 생각하는 것은 구이에서 정길한 것을 이어받아 下卦의 上位에 거처하며⁶⁷⁾, 坎卦에서 풀려나 震卦와의 경계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貞해도 좀 할 것이라 하였으나⁶⁸⁾ 孔子는 더 나아가 盜賊을 가르쳐 奪伐을 부를 것이라 하였으니 거의 凶함에 가깝다. 繫辭傳에서 강조한 것은 盜賊이 침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이며 이는 어려움으로부터 풀어지려는 때에 오히려 안으로 貞해야 한다는 것이다.

8) 咸卦 九四爻

易에 이르기를 “憧憧하게 往來하면 벗이 네 생각을 따를 것이다.”라 하니,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天下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고려하겠는가. 天下가 돌아감은 같으나 길은 다르며, 하나로 이르나 생각은 백 가지이니, 天下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려하겠는가⁶⁹⁾.

62)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45. “【傳】西南, 坤方, 坤之體, 廣大平易.”

63)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45. “解利西南, 无所往, 其來復吉, 有攸往, 夙吉.”,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48. “解利西南, 往得衆也.”

64) “九二田獲三狐, 得黃矢, 貞吉.”(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51.)라 하여 貞하여 正道(黃矢)를 가지고 있다.

65)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55. “九四解而拇, 朋至斯孚.”

66)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57. “六五君子維有解吉, 有孚于小人. 象曰君子有解, 小人退也.”

67)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53. “【傳】六三陰柔居下之上, 處非其位, 猶小人宜在下以負荷, 而且乘車非其據也.”

68)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p.153-154. “六三負且乘, 致寇至, 貞吝. 象曰負且乘, 亦可醜也. 自我致戎, 又誰咎也.”

해가 가면 달이 오고 달이 가면 해가 와서 해와 달이 서로 미룸(推)에 밝음이 생기며,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와서 추위와 더위가 서로 미룸(推)에 해(歲)가 이루어지니, 가는 것은 굽힘이요 오는 것은 펴이니, 屈伸이 서로 감하여 이로움이 생긴다⁷⁰⁾.

자발레가 몸을 굽힘은 펴를 구하기 위해서요, 용과 뱀이 칩거함은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義를 정밀히 하여 神妙한 경지에 들어감은 씬을 지극히 하기 위해서요, 씬을 이롭게 하여 몸을 편안히 함은 德을 높이기 위해서이니⁷¹⁾,

이를 지나서 가는 것은 혹 알 수 없으니, 神을 窮究하여 造化를 알아 德의 盛함이다⁷²⁾.

咸卦는 兌上艮下(☱☶)으로서 澤 아래에 山이 있는 形象으로 아래의 男子가 위의 女子에 感하는 것과 같다⁷³⁾. 근본적으로 艮卦가 속이 虛하므로 感하고 또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⁷⁴⁾.

孔子가 九四爻에 주목한 이유는 六二와 九五가 天地의 交感을 形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六二는 外物을 쫓아 動하여 凶하게 되니 居해야 하고⁷⁵⁾ 九

三도 그대로 따라감을 고집하므로 가서 부끄럽게 된다⁷⁶⁾. 九五는 君主이면서도 등져서 남을 感動시키지 못하며 私心도 없어서 후회할 일도 없을 뿐이다⁷⁷⁾. 또한 初六과 上六은 그야말로 末端이므로 天地交感과 거리가 멀다⁷⁸⁾.

孔子는 “憧憧往來”가 서로 그리워하는 私心에 의한 것임을 알면서도 세상이 늘상 그러하여 수만 가지로 나뉘어 흘러감을 인정하고⁷⁹⁾, 이러한 天地의 交感의 결과는 思慮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그것은 실로 日月과 寒熱의 往來를 통하여 서로 미루어 갈마듬으로써 利益이 생긴다고 하였다⁸⁰⁾. 精義入神은 굽혀서 안을 다스리는 것이고, 다시 그것을 펴서 쓰고(以致用也), 써서 몸이 편해지면 다시 德을 崇尚하게 되니 이 모든 것이 屈伸일 뿐이다. 이와 같이 憧憧은 小人의 私心이지만 往來하는 그 속에 交感이 있고 萬物生長의 造化가 있거늘, 또한 屈伸의 陰陽 變化 저편의 神妙한 造化는 다 알 수 없으니 그것은 德의 지극한 것이라 하였다⁸¹⁾. 중국에는 陰陽을 헤아릴 수 없는 神의 경지까지 설명한 것이다. 이것이 孔子가 咸卦 九四의 “憧憧往來”로부터 萬物 陰陽變化의 심오한 의미를 읽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69)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78. “易曰憧憧往來면 朋從爾思라하니 子曰天下何思何慮리오 天下同歸而殊塗하며 一致而百慮니 天下何思何慮리오.”
70)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79. “日往則月來하고 月往則日來하여 日月相推而明生焉하며 寒往則暑來하고 暑往則寒來하여 寒暑相推而歲成焉하니 往者는 屈也요 來者는 信也니 屈信相感而利生焉하니라.”
71)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79. “尺之屈은 以求信也요 龍蛇之蟄은 以存身也요 精義入神은 以致用也요 利用安身은 以崇德也니.”
72)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80. “過此以往은 未之或知也니 窮神知化는 德之盛也라.”
73)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8. “咸亨利貞, 取女吉.”,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9. “柔上而剛下, 二氣感應以相與, 止而說, 男下女, 是以亨利貞, 取女吉也.”
74)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1. “象曰山上有澤咸, 君子以虛受人.”
75)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3. “六二咸其腓, 居吉.”, 成百曉譯註. 懸吐完譯

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3. “【傳】二若不守道, 待上之求而如桴之動, 則躁妄自失, 所以凶也. 安其居而不動, 以待上之求, 則得進退之道而吉也.”
76)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4. “九三咸其股, 執其隨往吝.”
77)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21. “九五咸其脢, 无悔.”,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21. “【本義】脢背肉, 在上而相背, 不能感物而无私係, 九五適當其處故, 取其象而成占者, 以能如是, 則雖不能感物, 而亦可以无悔也.”
78)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2. “初六咸其拇.”,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22. “上六咸其輔頰舌.”
79)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78. “子曰天下何思何慮. 天下同歸而殊塗, 一致而百慮, 天下何思何慮.”
80)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79. “屈信相感, 而利生焉.”
81)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80. “過此以往, 未之或知也, 窮神知化, 德之盛也.”

9) 困卦 六三爻

易에 이르기를 “돌에 困하며 가시덤불(藜)에 앉아 있다. 그 집에 들어가도 아내를 만나보지 못하니 凶하다.”라 하니,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困할 바가 아닌데 困하니 이름이 반드시 욕될 것이요, 앉을 곳이 아닌데 앉으니 몸이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다. 이미 욕되고 또 위태로워서 죽을 시기가 장차 이르니, 하물며 아내를 볼 수 있겠는가⁸²⁾.

困卦는 兌上坎下(☱☵)으로서 卦象에서 陽이 陰의 가림을 받아 답답한 尙으로⁸³⁾, 外部와 疏通을 하지 못하여 困窮해지고 그로 인하여 澤도 같이 困窮(枯渴)을 당하게 되는 象이나 君子만이 오히려 이를 견디어⁸⁴⁾ 亨通으로 갈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는 吉하다⁸⁵⁾. 이 경우에 君, 臣의 君子는 貞으로써 祭를 올려 難관 속을 버티고 나가게 된다⁸⁶⁾.

六三은 돌과 같이 견고하여 벗어나기 힘든 尙이면서 또한 가시덤불에 앉아 어려운 國에 처한 것인데⁸⁷⁾, 孔子는 辱되고 危殆로워 죽음이 장차 이를 것이라 하였다. 困할 바 아닌데 困하여 名譽를 잃었다는 의미는 전혀 困한 尙이 아닌데도 困함을 스스로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居處할 바 아닌데 居處하였다는 것도 의지하여 도움을 줄만한 국이

아닌데도 스스로 居處하여 몸을 危殆롭게 하였다는 것이다. 즉, 스스로 迷惑되어 원래 妻가 없는 宮에 제 발로 찾아들어가거나 設령 妻가 있더라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困卦의 세 陰爻를 살펴보면 初六은 가장 아래로 깊은 계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象이며⁸⁸⁾, 上六은 困을 벗어나게 되어 결국 吉하다⁸⁹⁾. 이에 비하여 六三은 마음이 迷惑되어 있어서 困卦 전체에서 困함을 만들어내는 가장 根원이 되니, 이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고까지 하였다. 六三이 이와 같이 위태롭게 된 이유는 결국 陰陽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上下의 세 陽爻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⁹⁰⁾ 獨陰의 尙으로 남은 故로 보인다. 공자는 이러한 迷惑됨이 죽음을 부르는 徵兆로 보고 매우 상스럽지 못하다고 하였다.

10) 解卦 上六爻

易에 이르기를 “公이 새를 높은 담 위에서 쏘아 잡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 하니,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隼은 새이고 弓矢는 器物이며 쏘는 것은 사람이니, 君子가 器物을 몸에 간직하였다가 때를 기다려 움직이면 어찌 이롭지 않음이 있으리오. 움직임에 막히지 않으니, 이 때문에 나서면 획득함이 있을 것이니, 器物을 이루고 나서 動하는 자를 말한 것이다⁹¹⁾.”

九二에 貞으로써 黃矢를 얻고 九四와 六五부터 難관을 풀었나갔던 과정들을 통하여 모든 준비를 갖

82)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80. “易曰困于石하며 據于藜라 入于其宮이라도 不見其妻니 凶이라하니 子曰非所困而困焉하니 名必辱하고 非所據而據焉하니 身必危하리니 既辱且危하여 死期將至어니 妻其可得見邪아.”

83)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260. “象曰困剛揜也”

84)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261. “陰以說困而不失其所亨, 其唯君子乎.”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262. “象曰澤无水困, 君子以致命遂志.”

85)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259. “困亨貞大人吉, 无咎.”

86)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265. “九二困于酒食, 朱紱方來, 利用亨祀, 征凶, 无咎.”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271. “九五劓刑, 困于赤紱, 乃徐有說, 利用祭祀.”

87)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267. “六三困于石, 據于蒺藜, 入于其宮, 不見其妻 凶.”

88)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263. “初六臀困于株木, 入于幽谷, 三歲不覿.”

89)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274. “上六困于葛藟于臲臲, 曰動悔, 有悔征吉.”

90)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265. “九二困于酒食, 朱紱方來, 利用亨祀, 征凶, 无咎.”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269. “九四來徐徐, 困于金革車, 有終.”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271. “九五劓刑困于赤紱, 乃徐有說, 利用祭祀.”

91)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81. “易曰公用射于高墉之上하여 獲之니 无不利라하니 子曰隼者는 禽也요 弓矢者는 器也요 射之者는 人 也니 君子藏器於身하여 待時而動이면 何不利之有리오. 動而不括이라 是以出而有獲하나니 語成器而動者也라.”

추고 난 뒤, 확실하게 쏘아서 悖亂을 없앴을 말하니⁹²⁾,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孔子가 말한 대로 器物을 완전히 이루고 몸에 간직한 이후에 비로소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解卦에서 貞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준비를 다하여 마지막에 萬物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중요한 때를 맞이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말하였다.

11) 噬嗑卦 初九爻와 上九爻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小人은 不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不義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利益을 보지 않으면 부지런하지 않고 威嚴이 없으면 懲戒할 수 없으니, 조금 懲戒하여 크게 警戒시킴이 小人의 福이다. 易에 이르기를 “신발의 형틀에 매어 발가락이 없어지니, 허물이 없다.”라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⁹³⁾.

선이 쌓이지 않으면 이름을 이룰 수 없고, 惡이 쌓이지 않으면 몸을 滅할 수 없는데, 小人은 작은 善을 無益하다 하여 行하지 않고 작은 惡을 傷함이 없다 하여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惡이 쌓여서 가릴 수 없고 罪가 커져 풀 수 없으니, 易에 이르기를 “형틀을 뒤집어써서 귀가 없어지니 凶하다.”라 하였다⁹⁴⁾.

噬嗑卦는 離上震下(☲☳)로서 턱 속에 물건이 있는 것으로 감옥을 쓰는 것과 같아서 결국 亨通하다⁹⁵⁾. 動이 火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剛柔가 각각 분별되어 마땅하게 움직이고 先王의 法이 밝게 집행되니, 君子의 道로 教化시키는 象이다⁹⁶⁾.

初九는 처음 刑罰을 주어 조금 損傷이 있더라도 허물이 없으니, 그 이유는 小人은 조금 懲戒하여도 警戒가 크기 때문이다⁹⁷⁾. 孔子는 여기서 小人을 不恥, 不畏, 不勸, 不懲으로 규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教化하기 어려운 小人이라도 감옥을 두어 죄의 罅이 커지기 전에 조금의 懲戒를 가한다면 그것이 큰 警戒가 되어 오히려 轉禍爲福이 된다는 것이다. 上九는 聰明하지 못하여 小善, 小惡이 쌓임을 알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大罪에 이르게 된 것이니 이는 머리까지 형틀에 매일 정도로 죄가 커진 것이며 귀가 없어짐은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것이다⁹⁸⁾. 孔子가 噬嗑卦의 初九와 上九를 비교한 이유는 善惡이 처음 생겨날 때에 미리 살피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잘못이 커져 마음이 미혹된 이후에는 重刑을 면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12) 否卦 九五爻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태로울까 함은 그 지위를 편안히 하는 것이요, 망할까 함은 그 삶을 보존하는 것이요, 어지러운까 함은 그 다스림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편안해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보존하여도 망함을 잊지 않고, 다스려져도 어지러움을 잊지 않는다. 이로써 자신이 편안하여 國家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니, 易에 이르기를 “망할까 망할까 하여야 叢生하는 뿔나무에 매어놓듯 깊고 견고하다.”라 하였다⁹⁹⁾.

否卦는 乾上坤下(☰☷)으로서 天地가 거꾸로 되어 小人의 道는 자라나고 君子의 道는 消滅되어 가는

92)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59. “象曰公用射隼, 以解悖也.”

93)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81. “子曰小人은 不恥不仁하며 不畏不義라 不見利면 不勸하며 不威면 不懲하나니 小懲而大誡가 此小人之福也라 易曰屨校하여 滅趾니 无咎라하니 此之謂也라.”

94)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82. “善不積이면 不足以成名이요 惡不積이면 不足以滅身이니 小人은 以小善爲无益而弗爲也하며 以小惡爲无傷而弗去也라 故로 惡積而不可掩이며 罪大而不可解니 易曰何校하여 滅耳니 凶이라하니라.”

95)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86. “噬嗑, 亨利用獄.”

96)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88. “剛柔分動而明, 雷電合而章.”,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89. “象曰雷電噬嗑, 先王以明罰勅法.”

97)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82. “小懲而大誡, 此小人之福也.”

98)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499. “象曰何校滅耳, 聰不明也.”

99)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82. “子曰危者는 安其位者也요 亡者는 保其存者也요 亂者는 有其治者也라. 是故로 君子安而不忘危하며 存而不忘亡하며 治而不忘亂이라 是以身安而國家可保也니 易曰其亡其亡이라야 繫于包桑이라하니라.”

象으로¹⁰⁰) 사람의 道가 아니라 하였다¹⁰¹). 이러한 시기에는 君子는 祿을 버리고 안으로 德을 닦을 수밖에 없다¹⁰²).

九五는 否가 그치기 시작하여 大人이 살아나는 象으로¹⁰³), 여전히 危險과 亡함과 亂을 걱정하는 것은 세상이 다시 어지러워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니 마치 뽕나무에 굳게 매어 놓듯이 깊이 걱정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다. 孔子는 걱정과 편안함은 항상 동시에 같이 있어서 君子가 이에 늘 마음을 놓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즉, 天地가 막힌 否의 亂世뿐만 아니라 治世에도 늘 미래를 생각하고 어려움에 대비하는 君子의 德을 설명한 것이다.

13) 鼎卦 九四爻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德이 얹으면서 지위가 높고, 얹이 작으면서 辟함이 크고, 힘이 작으면서 짐이 무거우면 화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易에 이르기를 “술이 발이 부러져 公의 음식을 얻었으니, 그 형색이 일그러져 凶하다.”라 하였으니,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¹⁰⁴).

鼎卦는 離上巽下(☲☱)으로서 나무가 불을 쫓아서 上帝에 歆饗하고 聖賢을 기르는 象으로 크게 亨通하다¹⁰⁵).

100)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358. “內陰而外陽, 內柔而外剛, 內小人而外君子, 小人道長, 君子道消也.”

101)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p.356-357. “否之匪人, 不利君子貞, 大往小來.”

102)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358. “象曰天地不交否, 君子以儉德辟難, 不可榮以祿.”

103)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365. “九五休否, 大人吉, 其亡其亡, 繫于苞桑.”

104)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583. “子曰德薄而位尊하며 知小而謀大하며 力小而任重하면 鮮不及矣나니 易曰鼎折足하여 覆公餗하니 其形屋이라 凶이라하니 言不勝其任也라.”

105)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309. “鼎元吉亨”,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311. “以木巽火, 亨飪也. 聖人亨以享上帝, 而大亨以養聖賢.”

九四是 六五가 君主의 德으로 百姓에게 베풀어 權威(黃耳, 金鉉)를 가지고 있는 것¹⁰⁶에 대하여 자신의 분수를 벗어나 君主를 대신하여 行事하려 하다가 술이 얻어진 것이다¹⁰⁷. 얼굴이 일그러져 악착같은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은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는 九三에서 술기가 변하고 막혀서(變革을 꾀하다가) 먹지 못할 뻔한 것¹⁰⁸과, 六五의 陰爻가 貞하여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다. 孔子는 술을 얻은 이유가 자신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앞서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가 미친 것이라 하였다. 단지 신뢰를 상실한 것뿐이 아니라 非其人으로 大任을 맡아 行하려는 욕심이 앞섬을 경계한 것이다.

14) 豫卦 六二爻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幾微를 얹이 그렇게 神妙하구나. 君子는 위로 사귀되 아첨하지 않고 아래로 사귀되 冒瀆하지 않으니, 幾微를 아는구나. 幾는 움직임이 隱微하여 吉凶이 먼저 드러난 것이니, 君子는 幾微를 보고 일어나서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으니, 易에 이르기를 “돌처럼 절개가 굳은지라 하루를 마치지 않으니, 貞하고 吉하다.”라 하였으니, 절개가 돌과 같으니, 어찌 하루를 마칠 필요가 있겠는가. 단호함을 알 수 있다. 굳자는 隱微함을 알고 드러남을 알며, 柔를 알고 剛을 아니, 萬夫가 우리 른다¹⁰⁹).

豫卦는 震上坤下(☳☷)으로서 우리가 땅으로부터

106)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323. “六五鼎黃耳金鉉, 利貞.”

107)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321. “九四鼎折足, 覆公餗, 其形屋, 凶.”

108)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318. “九三鼎耳革, 其行塞, 雉膏不食, 方雨, 虧悔終吉.”

109)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p.583-584. “子曰知幾其神乎인저. 君子上交不諂하며 下交不瀆하나니 其知幾乎인저. 幾者는 動之微니 吉之先見者也니 君子見幾而作하여 不俟終日이니 易曰介于石이라 不終日이니 貞하고 吉이라하니 介如石焉이어나니 寧用終日이리오. 斷可識矣로다. 君子知微知彰知柔知剛하나니 萬夫之望이라.”

숫아나는 象이니¹¹⁰⁾ 坤의 陰體로부터 바탕을 잘 다진 후에 큰 뜻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니, 마치 先王이 음악을 짓고 德을 숭상하며 上帝에 제사를 올려 그 뜻과 함께한 이후에 당대에 이르러 文物이 성해지는 것과 같다. 侯를 세워 정치를 안정시킨 후에 군사를 움직이는 것도 이와 같으며¹¹¹⁾, 動을 주도하는 陽綱이 陰柔 속에 품고 있는 志에 應하여 그에 따라 뜻을 펼친다고도 하였다¹¹²⁾.

孔子는 豫卦에서 志를 품는 것이 君子가 미리 幾微를 살펴 決斷을 내리는 것으로 풀었다. 이러한 豫見과 果斷性은 中正하여 貞한 六二가 가지고 있으니, 初六은 단지 鳴豫로 志가 窮하여 凶하고¹¹³⁾, 六三은 豫卦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九四를 바라보기만 하여 후회만이 있을 뿐이다¹¹⁴⁾. 九四는 움직임을 일으켜 志를 크게 행하여 얻음이 있으니 君主의 역할을 대신하여 벗들이 모이고¹¹⁵⁾, 六五와 上六은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즐거움에 빠져 병과 어두운 상태에 있다¹¹⁶⁾. 孔子는 豫卦의 핵심인 志가 돌과 같은 절개에 있으며, 여기서 절개는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君子가 幾微를 미리 알아서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는 知와 行으로 풀이하였다. 神妙하게 幾微를 살펴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곧 易이니, 萬夫가 우러른다는 것도 또한 易의 道를 칭송한 것이다.

15) 復卦 初九爻

- 110)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418. “象曰雷出地奮豫, 先王以作樂崇德, 殷薦之上帝, 以配祖考.”
- 111)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414. “豫利建侯行師”
- 112)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415. “象曰豫剛應而志行, 順以動豫.”
- 113)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419. “初六鳴豫, 凶. 象曰初六鳴豫, 志窮, 凶也.”
- 114)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422. “六三吁豫, 悔遲, 有悔.”
- 115)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p.424-425. “九四由豫, 大有得, 勿疑, 朋盍簪. 象曰由豫大有得, 志大行也.”
- 116)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426. “六五貞, 疾, 恒不死.”,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428. “上六冥豫, 成有渝, 无咎.”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顔子は 거의 道에 가깝구나. 善하지 않음이 있으면 일찍이 깨닫지 못한 적이 없으며, 깨달으면 일찍이 다시 행하지 않았다. 易에 이르기를 “멀리 가지 않고 회복하여 杼우침에 이르지 않으니, 크게 吉하다.”라 하였다¹¹⁷⁾.

復卦는 坤上震下(☱☳)으로서 陽이 아래에서 始生하는 象으로 이는 天地의 運行에 따라¹¹⁸⁾ 消息, 出入하여 陽剛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¹¹⁹⁾. 따라서 出入에 막힘이 없으며 벗이 찾아와 큰 탈이 없다¹²⁰⁾. 단 君子는 앞으로 一陽의 長의 위하여 조심스럽게 지켜서 길러나가야만 한다¹²¹⁾.

初九는 陽이 天地運行的 이치를 따라 始生하는 象이니, 孔子는 不善을 들으면 바로 이해하고 다시는 행하지 않았던 顔子에 비유하여, 初九도 이와 같은 이치를 알아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돌아와서 후회에 이르는 경우가 없기에 크게 吉하다고 하였다. 이는 下震卦에서 陽이 始生할 때 陽剛의 나아가려는 성질보다는 스스로 善의 이치에 밝아서 다시는 잘못을 행하지 않는 象을 말한 것으로, 일 년 또는 봄의 가장 처음에 安分自足하여 오히려 안으로 善을 알고 실천에 주력해야 함을 보인 것이다.

16) 損卦 六三爻

天地의 기운이 엷히고 쌓임에 萬物이 化하여 성숙되고, 男女가 精을 맺음에 萬物이 化生한다. 易에 이르기를 “세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을 덜고, 한 사람

- 117)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584. “子曰顔氏之子其殆庶幾乎인저 有不善이면 未嘗不知하며 知之면 未嘗復行也하나니 易曰不遠復이라 无貳悔니 元吉이라하니라.”
- 118)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535. “復, 其見天地之心乎.” “反復其道, 七日來復, 天行也.”
- 119)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532. “反復其道, 七日來復, 利有攸往.”,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533. “象曰復亨, 剛反.”
- 120)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530. “復亨, 出入无疾, 朋來无咎.”
- 121)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536. “象曰雷在地中, 復, 先王以至日閉關, 商旅不行, 后不省方.”

이 가면 그 벗을 얻는다.”라 하였으니, 하나에 지극히 함을 말한 것이다¹²²⁾.

損卦는 艮上兌下(☶☱)으로서 산 아래에 못이 있는 象으로서, 아래의 陽剛을 덜어 위의 陰柔에 더해줌으로 인하여 길함을 얻는 것이다¹²³⁾. 더는 데는 式보다 用을 중시하며¹²⁴⁾, 이도 또한 天道에 맞추어 행해지게 된다¹²⁵⁾.

初九와 九二는 위의 志를 짐작하거나 中으로써 志를 삼아 미리 움직임을 도모하는 것이고¹²⁶⁾, 六三에 이르러 비로소 덜어내기 시작한다. 六四와 六五에서 上下內外로 덜어 나가 하늘의 福을 받고¹²⁷⁾ 上九에서 뜻을 크게 이루며¹²⁸⁾, 初九와 九二는 志를 보존하면서 펼쳐가는 역할을 하니, 그 사이의 위치한 六三에서 損益의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孔子는 덜어서 보탬이 되는 그 근본 원리를 陰陽論으로 설명하였다. 셋에서 하나를 덜어 둘의 대립을 만들고¹²⁹⁾, 또한 혼자 행함으로써 損하여 다시

벗을 불러 둘이 되니, 損하는 것은 곧 天地男女의 陰陽 運動을 일으키고 一陰一陽의 道는 다시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합(致一)을 지향하게 된다. 여기서의 통합은 萬物을 化醇, 化生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 益卦 上九爻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君子는 몸을 편안히 한 후에 움직이며, 마음을 和平히 한 후에 말하며, 사귀를 제대로 한 후에 구하니, 君子는 이 세 가지를 닦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다. 危殆로움으로써 움직이면 百姓들이 함께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말하면 百姓들이 應對하지 않고, 사귀이 없으면서 구하면 百姓들이 함께하지 않으니, 함께하지 않으면 傷하게 하는 자가 이를 것이다. 易에 이르기를 “도움을 주는 자가 없고 오히려 공격당할 수 있으니, 마음을 세움을 항상하지 말아야 하니, 凶하다.”라 하였다¹³⁰⁾.

益卦는 巽上震下(☴☳)으로서 損卦에서부터 이어지는 卦로, 損卦와 반대로 위를 덜어서 아래를 더하여¹³¹⁾, 하늘이 베풀고 땅이 낳아서 백성과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끝이 없다고 하였다¹³²⁾. 이는 損卦와

122)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85. “天地綱維에 萬物化醇하고 男女構精에 萬物化生하나니 易曰三人行엔 則損一人하고 一人行엔 則得其友라하니 言致一也라.”

123)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65. “曷之用二簋可用享, 二簋應有時, 損剛益柔有時.”,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64. “象曰損損下益上, 其道上行.”,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62. “損有孚元吉, 无咎可貞, 利有攸往.”

124)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63. “曷之用, 二簋可用享.”

125)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66. “損益盈虛, 與時偕行.”

126)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68. “象曰已事遄往, 尙合志也.”,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69. “象曰九二利貞, 中以爲志也.”

127)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72. “六四損其疾, 使遇, 有喜, 无咎.”,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p.173-174. “六五或益之, 十朋之龜, 弗克違, 元吉. 象曰六五元吉, 自上祐也.”

128)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p.174-176. “上九弗損益之, 无咎貞吉, 利有攸往, 得臣无家. 象曰弗損益之, 大得志也.”

129) 三은 三才를 의미하여 완성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므로 이를 덜어서 二로 변

화하는 것이다. 損卦의 損下益上은 卦變에서 下乾卦의 三爻가 上坤卦의 上爻로 옮긴 것으로 보는데, 이때 一을 던 것에 대해 “象曰一人行, 三則疑也.”(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71.)라 하여 三을 의심스러운 상태로 보았다. 반면에 陰陽의 二數는 의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30)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585. “子曰君子安其身而後動하며 易其心而後語하며 定其交而後求하나니 君子修此三者라 故로 全也하나니 危以動하면 則民不與也요 懼以語하면 則民不應也요 无交而求하면 則民不與也하나니 莫之與하면 則傷之者至矣하나니 易曰莫益之라 或擊之리니 立心勿恒이니 凶이라하니 라.”

131)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78. “象曰益損上益下, 民說无疆, 自上下下, 其道大光.”

132)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79. “利涉大川, 木道乃行.”,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79. “益動而巽, 日進无疆.”,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80. “天施地生, 其益无方.”

마찬가지로 天地四時의 순리에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¹³³⁾.

益卦의 初九는 담당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한 일이 아니므로 큰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롭고¹³⁴⁾, 六二는 君主인 九五의 惠澤을 받아 스스로 바름을 지켜(貞) 天帝에 欽享하니 밖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이며¹³⁵⁾, 六三과 六四도 中行으로써 上公에 의지하여 쫓아가면 허물이 없고 이롭다¹³⁶⁾. 九五는 君主로서 믿음직하고 恩惠를 베푸는 마음이 있는지라 물어볼 것도 없이 원래 吉하고 백성들도 君主의 德에 감사하는 象이다¹³⁷⁾.

孔子는 上九에 대하여, 危殆롭고 두렵고 사림이 없어서 百姓이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傷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上九가, 九五가 惠心을 베풀어 백성들로부터 아낌을 받는 것을 私心으로 모방하여 백성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니, 이런 마음을 세우는 것은 계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한 것이다. 앞의 損卦에서 上九가 損의 極에서 貞을 지켜 저절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¹³⁸⁾과는 대조적으로, 益卦의 上九는 益의 極에서 私心을 버리지 못하니 결국 凶하게 된다. 象에서 단지 편벽하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¹³⁹⁾ 孔子는, 惠心 없이 益만을 추구하여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益卦 중의 가장 큰

폐단에 해당함을 지적한 것이다.

3. 『周易·繫辭傳』의 爻辭 解釋에 대한 陰陽論的 分析

繫辭傳에 나오는 각 卦爻에 대한 孔子의 설명을 陰陽 關係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陰陽의 和合으로 인하여 吉한 卦爻를 살펴 보면, 同人卦 九五爻에서 九五가 君主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六二에 사사로운 情으로 끌리는데, 이때에 만약 마음이 합치지게 되면 陽으로는 강하기가 쇠도 꿀을 수 있으며, 陰으로는 말의 향기마저도 아름답다으니 陰陽和合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이때 六二는 同人卦 중 홀로 陰爻로서 원래 宗黨에 편협해지다가 좁한 것인데, 이를 陰陽和合으로 바꾸는 것도 出處默語하는 君子 九五의 權道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陽이 君子의 道를 발휘하여 陰陽和合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男女의 交合이 승화되어 다시 강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로 드러나니 陰陽和合의 神妙함을 알 수 있다.

陰陽和合의 原理를 설명한 것으로 우선 損卦 六三爻가 있는데, 初九와 九二에서 貞하여 志를 간직하다가 六三에 이르러서야 損益의 原理가 구현되고 六四부터는 이를 실행해 나간다. 떨어져 결국 보탬이 되는 損益의 근본 원리를 陰陽의 상호 작용으로 보고 있으니, 이 陰陽 變化를 통하여 萬物을 化生하여 기른다고 하였다. 陰陽은 셋이 따로 없으므로 둘을 만들려고 하며, 또한 一陰一陽의 陰陽 變化를 통해 하나로의 化生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咸卦 九四爻에서는 현실에서 陰陽의 往來와 交感이 일어나며 그 交感을 통해 萬物의 이로움이 생기고, 결국 이러한 陰陽 變化의 바탕에는 헤아릴 수 없는 神의 造化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上下 두 卦의 중심인 六二와 九五가 직접 交感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경계가 되는 九四에서 현실적인 交感이 이루어지며, 이와 같이 단순한 憧憧의 往來 속에 오히려 神妙한 造化가 內包되어 있다는 것이다.

男女 간의 陰陽和合과 비슷하게 부모 자식 간의 和合을 말하고 있는 경우에는 中孚卦 九二爻로서, 부모와 자식의 情을 통하여 미루어 나가 天下를 읊

133)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180. “凡益之道, 與時偕行.”

134)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p.182-183. “初九利用為大作, 元吉, 无咎. 象曰元吉无咎, 下不厚事也.”

135)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p.183-185. “六二或益之, 十朋之龜, 弗克違, 永貞吉, 王用享于帝, 吉. 象曰或益之, 自外來也.”

136)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186. “六三益之用凶事, 无咎, 有孚中行, 告公用圭.”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188. “六四中行, 告公從, 利用為依, 遷國.”

137)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190. “九五有孚惠心, 勿問元吉, 有孚惠我德.”

138)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174. “上九弗損益之, 无咎, 貞吉, 利有攸往, 得臣无家.”

139)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192. “象曰莫益之, 偏辭也. 或擊之, 自外來也.”

직이기까지에 이른다. 陽剛이 二爻의 陰 자리에 위치하여 뜻을 품고 있는데 이를 君主인 九五뿐만 아니라 천리 밖의 백성까지 연모하도록 만드니, 中孚卦에서 믿음의 속이 비어 있는 陰의 형상으로부터 나옴과 관련 있으며, 또한 二爻가 비록 陰의 자리이나 陽剛이 위치하여 君子의 樞機를 발하고 있다. 九二와 九五가 모두 陽爻이나 陰陽의 성격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게 되는 경우이다.

陰陽 간의 균형 관계를 살펴보면, 大過卦 初六爻는 아래 巽卦의 두 陽爻가 지나치게(過) 되기 쉬우므로 初六爻가 이를 견제하고 있으며, 大過卦가 전체적으로 過하므로 결국 初六爻가 大過卦 전체의 陰陽 균형을 맞추는 데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자는 밑에 자리를 까는 것 자체로吉하다고 하였고, 또한 과시하지 않는 소박한 白茅를 사용하였으니 더욱 용도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陽이 지나치게 亢盛하여 發散하는 것을 陰이 속에서 지나치지 않도록 제어하고 있다.

陽이 陰의 德을 갖추어서 좋은 경우로 謙卦 九三爻가 있는데, 謙卦에서 가장 중요한 謙讓의 德을 갖추고 있다. 즉, 陽爻로서 수고롭게 힘쓰면서도 남을伐하지 않고 功이 있으면서도 자신을 낮추어 그 德의 盛함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하여 君主의 자리에 있는 六五는 陰爻이면서도 謙으로 인해 얻은 권위를 밖으로 發揮하여 伐을 쓰고 있어서 서로 대비된다. 또한 節卦에서도 절제의 本性이 下卦에서 나오는데 그 중 初九爻에서 이미 事物의 通塞을 알고도 愼密함을 위하여 戶庭에 나서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알고 있는 것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아서 위태롭지 않게 되면 향후 安節과 甘節에 이르게 되니, 言語의 시작에 주의하는 것을 君子의 道로 보았다. 陽이 안으로 陰의 密함을 지키는 象이다. 否卦 九五爻를 보면 否가 그치지 시작하여 大人이 吉하지만 아직도 막혀서 어려운 상황이므로 망할까를 경계하는 象이다. 孔子는 여기에 대해서 상황이 안정되어 잘 보존되고 다스려지는 때라 하더라도 君子는 늘 미래를 대비하여 어려움이 닥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넓혀 해석하였으니, 陽이 자신의 勢를 과신하지 않고 항상 돌이켜 조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陽이 陰의 德을 갖추지 못하여 凶한 경우로, 益卦 上九爻는 九五 君主의 吉함을 갈망하나 惠心 없이 여전히 남으로부터 利益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凶하게 된다. 九五가 비록 陰爻는 아니나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과 사귀고자 하는 것은 君主가 가져야 할 陰의 德이라 할 수 있으며, 上九는 이러한 점이 부족하고 욕심이 앞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陽의 성질이 지나쳐서 陰의 자리를 범하려 하여 凶한 象은 鼎卦 九四爻에서 나타나는 데, 九四는 눈앞에 보이는 六五 君主의 榮光과 地位에 迷惑되어 자신의 분수에 넘어서 處身하다 凶하게 된 것이다. 陽이 욕심이 앞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과 지위를 넘보기 때문이다.

陽이 陰의 도움이 없어서 지나치게 亢盛하여 凶하게 된 것으로는 乾卦 上九爻가 대표적인데, 乾卦에 陰이 부족함으로 인한 獨陽의 문제가 極의 자리인 上九로 드러난 것이다. 九五의 힘만을 생각하여 강하게 나가려고만 하고, 陰이 부족하여 進退存亡을 아는 智慧와 柔軟함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자신의 地位와 百姓, 賢人을 모두 잃게 된다. 이와 대비되어 復卦 初九爻는 유일한 陽爻로 天地 運행의 始初를 이끌어 나가는데, 安分自足을 바탕으로 지혜를 실천하여 道에 가까웠던 顔子에 비유하였다. 이는 初九가 陽剛의 성질을, 始生하여 앞으로 나아가려는 데에 쓰지 않고, 안으로 善을 살피고 바로 실천하여 스스로의 할 일을 충실히 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니, 復卦 중 獨陽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갔다 되돌아오려 하지 않고 여러 陰 속에서 안으로 돌이켜 차분히 실천하는 陰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그밖에 陽爻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로, 噬嗑卦의 上九爻는 善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惡이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그 罪를 풀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凶한 象이다. 이는 善惡이 처음 생겨날 시초에 聰明하지 못하고 자만에 빠져 조심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陽의 過失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初九爻는 小人이 작은 懲罰에 대하여 크게 警戒을 하기 때문에 미리 惡의 싹을 없앨 수 있으므로 吉하다고 보았다. 上九와 初九 모두 幾微를 살펴 警戒해야 하는 데 초점이 있다.

陰爻가 卦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로는 豫卦의 六二爻가 있는데, 돌과 같은 절개를 가지고 微彰柔剛의 幾微를 살피고 決斷하여 즉시 실행하니 결국 萬夫의 우리를 받게 된다. 陰爻가 中正하여 貞을 가지고 志를 간직하는데 그 견고함이 돌과 같아서 밖으로 오히려 陽剛 君子의 象을 나타내게 되니, 이미 動하여 病이 생긴 六五의 君主보다 豫卦의 중심을 六二爻로 본 것이다.

解卦는 난관에 갇혔던 것이 풀리면서 밖으로 나가는 象이니, 미리 모든 器物을 몸에 익히고 때를 기다리다가 解의 極인 上六에 와야 밖으로 나가 외부의 목표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陰爻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때를 만나 밖으로 나서므로 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준비는 이미 九二에서 黃矢의 법을 집행하여 잘못을 없애고(獲三狐) 貞을 유지한 것을 말한다.

陰爻가 곤란에 처한 경우로 困卦 六三爻가 있는데, 上下의 세 陽爻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迷惑되어, 스스로 困하지도 處하지도 못할 곳으로 들어가 危險을 自招하고 있다. 陰이 고립된 상태에서 더욱 迷惑되어 다시 자신을 더욱 곤란에 빠지게 한 것이니, 스스로 迷惑된 것은 벗어나기 어려워 매우 凶하므로 죽음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解卦의 六三爻도 스스로 小人이면서 높은 地位에서 행세를 하려고 하니, 이는 盜賊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陰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陽의 자리에 욕심을 부려 禍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4. 『黃帝內經』의 陰陽論

『黃帝內經』에서는 『周易』과 마찬가지로 萬物을 陰陽의 多少로써 파악하고 이를 奇偶의 數로 표현하였는데¹⁴⁰⁾, 그 陰陽論의 여러 측면들을 간략하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天地宇宙 變化的 핵심

陰陽 개념은 萬物의 특성을 둘로 나누어 가리키

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陰陽의 運動變化를 말하기도 한다. 『黃帝內經』에서는 陰陽 運動을 宇宙變化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陰陽 運動이 天地의 運行 方法(道)으로, 萬物의 뿌리가 되고 變化를 일으키는 주체이니 그 가운데에 神明이 머문다고 하였다¹⁴¹⁾. 이러한 天地 運行의 주된 목적은 萬物을 化生하기 위함임으로 陰陽은 만물의 根本이라 할 수 있으며¹⁴²⁾, 萬物을 낳는 것뿐만 아니라 後天에서 기르고 살아가는 데에도 陰陽이 原理로 작용하니 이를 떠날 수 없다고 하였다¹⁴³⁾. 만약 陰陽의 變化 原理를 따라 살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生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¹⁴⁴⁾. 이와 같이 宇宙의 變化 原理이면서 萬物이 化生하여 살아가는 方法이 되므로 聖賢은 일찍이 陰陽을 法으로 삼고 이에 調和를 이루려고 하였다¹⁴⁵⁾.

2) 天地 萬物의 象

宇宙의 陰陽 運動으로 인하여 萬物이 化生하는 과정에서 하늘과 땅이 陰陽의 象을 대표한다. 萬物 중에서는 男女가 가장 대표적으로 陰陽의 象을 가지고 있으며, 五行 중 水火로서 그 徵兆를 나타내고¹⁴⁶⁾, 하나의 생명체 안에서는 氣가 陽에, 形體인 味는 陰에 배속된다¹⁴⁷⁾. 男女와 같이 이미 陰陽으로

1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50. “天地相感, 寒暖相移, 陰陽之道, 孰少孰多, 陰道偶, 陽道奇.(根結)”

1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 “黃帝曰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陰陽應象大論)”

14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 “夫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四氣調神大論)”

1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7. “人生有形, 不離陰陽.(寶命全形論)”

1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 “道者, 聖人之行之, 愚者佩之, 從陰陽則生, 逆之則死, 從之則治, 逆之則亂.(四氣調神大論)”

1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 “上古之人, 其知道者, 法於陰陽, 和於術數.(上古天真論)”,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2. “中古之時, 有至人者, 淳德全道, 和於陰陽, 調於四時, 去世離俗, 積精全神, 游行天地之間, 視聽八達之外, 此蓋益其壽命而強者也, 亦歸於真人.(上古天真論)”

1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4. “天地者, 萬物之上下也, 陰陽者, 血氣之男女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陰陽者, 萬物之能始也.(陰陽應象大論)”

나누어진 존재라 하더라도, 각각의 개체 속에 다시 陰陽이 分化되어 있어서 이러한 분화는 끝이 없어서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다¹⁴⁸⁾.

3) 陰陽의 상호 관계

陰陽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陰은 속에 위치하여 밖에서 활동하는 陽에 비하여 안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陽은 밖에 나가 있으며 陰의 부림을 받는다¹⁴⁹⁾. 이는 하나의 개체 속에서 內外로 각자의 역할을 맡아 強弱이 드러날 때에는 외부의 陽이 성 하나¹⁵⁰⁾, 서로 관계하여 협력할 경우에는 陰이 주도권을 가지고 陽을 부린다는 의미이다. 또한 陰은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여 精을 갈무리하면서 亟을 일으키고 陽은 밖을 호위하면서 堅固하게 만든다고 하였다¹⁵¹⁾. 이때 陽이 굳건하게 밖에서 일을 하면서 호위하는 것은 바른 것을 쫓기 때문이며, 陰은 속에서 보존하려고 하여 주인 역할을 하니 『素問陰陽離合論』에서는 이를 “陽予之正, 陰爲之主.”라 하였다.

여기서 陽氣가 바르다는 것은 節制하여 過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만약 지나치게 亢盛해지면 節制를 잃게 되어 緻密하지 못하게 되니¹⁵²⁾ 陰氣도 이내

같이 끊어진다. 陰이 平安의 德을 갖추어 陽도 緻密해지면 節制하게 되어 精神이 마침내 다스려진다고 하였다¹⁵³⁾.

4) 陰陽의 순환 운동

陰陽은 서로 순환 운동을 하는데, 上下의 升降 운동을 통하여 濁한 陰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淸한 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¹⁵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陰이 자신의 운동을 다하면 陽으로 轉換되고 반대로 陽이 자신의 운동을 다하면 陰으로 轉換된다¹⁵⁵⁾. 이러한 陰陽의 循環 運動 속에서 생명체가 나서 자라고 수렴하여 갈무리 하는 변화를 거치는데, 이때 陰陽은 서로 表裏가 되어 차례로 작용하여 상호 영향을 준다¹⁵⁶⁾.

5) 陰陽의 통합

이와 같이 陰陽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運動變化를 하고 있으므로 不可分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內經』에서는 陰과 陽은 이름이 다를 뿐 類를 같이 한다 하였고¹⁵⁷⁾, 病을 일으키거나¹⁵⁸⁾ 치료를 施行할 때에 둘을 하나로 보고 파악해야 한다고 하

1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 “水爲陰, 火爲陽, 陽爲氣, 陰爲味.(陰陽應象大論)”

14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9. “陰陽者, 數之可十, 推之可百, 數之可千, 推之可萬, 萬之大不可勝數, 然其要一也.(陰陽離合論)”,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4. “陽中有陰, 陰中有陽.(天元紀大論)”,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0. “陰中有陰, 陽中有陽. 平旦至日中, 天之陽, 陽中之陽也. 日中至黃昏, 天之陽, 陽中之陰也. 合夜至雞鳴, 天之陰, 陰中之陰也. 雞鳴至平旦, 天之陰, 陰中之陽也. 故人亦應之. 夫言人之陰陽, 則外爲陽, 內爲陰.(金匱真言論)”

14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4.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陰陽應象大論)” “陰靜陽躁.(陰陽應象大論)”

15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2. “陽者, 天氣也, 主外. 陰者, 地氣也, 主內. 故陽道實, 陰道虛.(太陰陽明論)”

151) “陰者, 藏精而起亟也, 陽者, 衛外而爲固也.(生氣通天論)”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라 하였는데 여기서 亟은 無形의 極을 의미하기도 하고 氣化를 통하여 精氣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52) “凡陰陽之要, 陽密乃固, 兩者不和, 若春無秋, 若冬無夏,

因而和之, 是謂聖度.(生氣通天論)”(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라고 하여 陽이 치밀하여야 堅固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陽이 緻密하고 陰이 平易하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니 聖인의 경지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15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 “故陽強不能密, 陰氣乃絕, 陰平陽秘, 精神乃治, 陰陽離決, 精氣乃絕.(生氣通天論)”,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1. “剛與剛, 陽氣破散, 陰氣乃消亡.(陰陽別論)”

15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 “積陽爲天, 積陰爲地.(陰陽應象大論)”, “淸陽爲天, 濁陰爲地.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雲出天氣.(陰陽應象大論)”

1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 “重陰必陽, 重陽必陰.(陰陽應象大論)”, “寒極生熱, 熱極生寒.(陰陽應象大論)”

15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 “陽生陰長, 陽殺陰藏.(陰陽應象大論)”

15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6. “陰之與陽也, 異名同類, 上下相會.(邪氣藏府病形)”

15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陽勝則熱, 陰勝則寒.(陰陽應象大論)”

였다¹⁵⁹⁾.

陰陽 運動이 목표로 하는 최고의 경지는 서로 調和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이를 聖人の 경지라고 하였다¹⁶⁰⁾. 또한 陰陽이 融合하여 陰陽을 파악할 수 없는 無極 또는 太極의 상태를 神이라 하여 聖과 서로 體用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였다¹⁶¹⁾.

III. 考 察

『周易』의 繫辭傳에 나오는 여러 卦의 爻辭에 대한 설명 속에서 파악한 陰陽觀을 『黃帝內經』에 記載된 陰陽에 대한 說明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陰陽의 和合에 대하여, 同人卦 九五爻에서 陰陽이 서로 和合할 경우에 비록 男女의 사사로운 情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강함은 쇠를 끊을 수 있고 부드러움은 蘭의 香과도 같다고 하였으니, 和合의 장점과 그 陰陽 特性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도 “凡陰陽之要, 陽密乃固, 兩者不和, 若春無秋, 若冬無夏, 因而和之, 是謂聖度.”라 하여, 구체적 표현은 아니나 四時의 陰陽變化가 곧 陰陽 調和의 결과이며 이것이 곧 聖人の 法度라고 말하고 있다.

陰陽 和合의 原理에 대해서는 損卦 六三爻에서 “天地綱維,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 易曰 三人行, 則損一人, 一人行, 則得其友, 言致一也.”라 하여 항상 陰陽의 待對 關係를 유지하면서도 결국 하나로의 통합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陰陽의 致一을 통하여 萬物을 化生하는 것에 대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라 하여 음양 운동이 萬物의 生死 變化의 근본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咸卦 九四爻에서는 “過此以往, 未之或知也, 窮神知化, 德之盛也.”라 하여 日月과 寒暑의 往來로서 陰陽이 交感하고 그 결과 萬物의 이로우미 생긴다고 하였는데, 『靈樞根結』에서도 “天地相感, 寒暖相移, 陰陽之道, 孰少孰多.”라 하여 往來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過此以往, 未之或知也, 窮神知化, 德之盛也.”라 하여 이러한 陰陽 變化의 바탕에는 陰陽을 초월하여 헤아릴 수 없는 神의 造化가 있다고 보았는데, 『素問天元紀大論』에서도 이러한 陰陽의 合一과 神의 造化에 대해 “陰陽不測, 謂之神, 神用無方, 謂之聖.”이라 하였다.

陰陽의 相互 關係에 대해서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라 하여 空間 상으로 陰이 안에, 陽이 밖에 位置하여 陰이 주도적으로 전체를 지키며 陽을 부린다고 하였으며, 『素問陰陽離合論』에서도 “陽予之正, 陰爲之主.”라 하였다. 이때 陽은 밖을 굳건하게 護衛하는데, 陰은 갈무리한 精을 바탕으로 亟을 세워 기준 역할을 하니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陰者, 藏精而起亟也, 陽者, 衛外而爲固也.”라 하였다. 또한 同篇에서 “陽強不能密, 陰氣乃絕. 陰平陽秘, 精神乃治.”, “凡陰陽之要, 陽密乃固.”라 하여, 陰은 平安해야 하며 陽은 강함을 누그러뜨리고 緻密해야 한다고¹⁶²⁾ 陰陽의 德을 각각 說明하였다. 또한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陽生陰長, 陽殺陰藏.”이라 한 것은 陰陽 關係를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生長 收藏 변화 속에서 有機體가 가지고 있는 表裏, 形氣의 복합적 구조로 인간을 바라본 모델이라는 점에서의 학적 特性을 보여준다.

陽의 密함은 節卦의 初九爻가 事物의 通塞을 알고도 戶庭에 나서지 않는 象과 유사하다¹⁶³⁾. 이에 비하여 豫卦의 六二是 陰爻로서 아래에 위치하여 들

15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1. “知陽者知陰, 知陰者知陽.(陰陽別論)”,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5. “從陰引陽, 從陽引陰.(陰陽應象大論)”

16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 “凡陰陽之要, 陽密乃固, 兩者不和, 若春無秋, 若冬無夏, 因而和之, 是謂聖度.(生氣通天論)”

16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3. “物生謂之化, 物極謂之變, 陰陽不測, 謂之神, 神用無方, 謂之聖.(天元紀大論)”

162) 陽이 뻐뻐하면(密) 견고하게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으며, 동시에 새어 나가는 것을 막아(秘) 안의 기운을 유지할 수 있다.

163) 節卦 初九爻의 密함은 『黃帝內經』에서 陽氣가 밖으로 나가 護衛할 때의 密함과는 차이가 있으나, 陽이 强盛하기만 하여 밖으로 흘러져 버리지 않고 치밀함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과 같은 절개를 가지고 幾微를 살펴 決斷하는 主人과 같은 象을 가지고 있다. 大過卦 初六爻도 九二와 九三이 지나치게 過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어 견제하므로 吉하다 하였다.

陽이 陰의 견제를 받거나 陰의 德을 지녀서 이로운 경우에는, 謙卦 九三爻가 初六과 六二의 영향을 받아 功이 있어도 자신의 德을 드러내지 않는 恭을 표현하고 있으며, 中孚卦 九二爻도 비록 같은 陽爻인 九五와 應하고 있으나 貞한 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줄 수 있고 좋은 벼슬을 가질 수 있다. 否卦 九五爻도 君主로서 어려운 상황이 풀려감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고 늘 미래를 염려하여 조심하는 象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噬嗑卦의 初九爻도 비록 小人이나 작은 刑罰에도 크게 警戒하여 吉할 수 있으므로 陽이 正道를 이탈하지 않은 것이다. 復卦 初九爻도 獨陽임에도 불구하고 못 陰들 속에서 앞으로만 나아가지 않고 善을 살피 行하는 陽의 道理를 잘 지키는 象이다.

解卦의 上六爻는 陽爻인 九二의 法을 받아 器物을 갖추고 몸에 익혔다가 밖으로 나아가 획득하는 象으로, 陰이 陽의 영향을 받아 吉한 경우이다.

陰陽이 不和하여 생기는 폐단을 『內經』에서는 간략히 “兩者不和, 若春無秋, 若冬無夏.”라 한 것에 비하여 『周易繫辭傳』에서는 여러 경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중 陽이 陰의 도움이나 통제를 받지 못하면, 乾卦 上九爻와 같이 進退存亡의 智慧를 모르는 無知에 빠져 亢盛하여 凶하게 되니 『素問陰陽別論』에서 “剛與剛, 陽氣破散, 陰氣乃消亡.”이라 하고,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陽強不能密, 陰氣乃絕.”이라 한 것과 같다. 噬嗑卦의 上九爻도 曄우쳐서 善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罪惡이 쌓인 것이니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困卦 六三爻는 陰爻가 孤立되고 스스로 迷惑되어 危險을 自招하는 경우이다.

陰陽이 서로 犯하는 것을 『素問陰陽別論』에서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陽勝則熱, 陰勝則寒.”이라 하였는데, 陽이 陰의 자리를 범하다 正度を 잃은 경우는 鼎卦 九四爻에서 볼 수 있으니, 이때의 陰은 六五의 君主인데 陽이 그 자리를 넘보다 결국 감당

하지 못하고 망한 상황이다. 이와 유사하게 益卦 上九爻도, 九五 君主의 惠心으로 인한 陰德을 갈망하나 스스로 이익 추구를 그치지 않아 凶하게 된다.

반대로 陰이 陽을 쫓아 자신의 분수에 넘어섬으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는 경우로, 解卦의 六三爻에서 小人이 君子의 자리에 올라 盜賊을 불러들이는 象이 있다.

종합해 보면 『黃帝內經』에서도 『周易繫辭傳』과 마찬가지로 宇宙 전체의 運行과 萬物 生成 과정이 陰陽의 變化라고 하여 天地自然의 法則임을 밝히고 있다.

陰陽의 관계에 있어서 陽이 밖에 위치하여 秘密하면서 護衛하는 역할을 하고, 陰은 안에 위치하여 亟의 기준을 세우고 平安함으로써 陽을 부리게 되는데, 『黃帝內經』과 『周易繫辭傳』 모두 이러한 陰陽간의 관계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단 『周易繫辭傳』에서는 陽이 陰의 견제를 받거나 陰의 덕을 갖추어 吉한 경우와 그 반대의 폐단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하고 있으나, 陰의 경우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陽이 陰의 부림을 받고 있으나 動靜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변화는 陽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周易繫辭傳』에서는 각 爻의 특성과 위치 관계에 따라 절제, 겸손, 공손, 절개, 경계 등과 신뢰, 실천, 현명함 등의 미덕을 지니게 되는 경우와, 독선, 무지, 미혹됨 등의 폐단을 초래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현실 속에서 陰陽論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黃帝內經』에서 陰陽의 상호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黃帝內經』에서는 陰陽 간의 다양한 관계 설정보다는 陰陽이 待對의 관계를 유지하며 循環하고 升降하는 運動에 대한 說明이 많은데, 이는 氣의 循環 運動이 醫學에서 보다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IV. 結論

1. 『黃帝內經』에서는 『周易』과 마찬가지로 萬物을 陰陽의 多少를 통하여 파악하여 이를 奇偶의 象

으로 표현하였고, 陰陽 運動變化가 목표로 하는 최고의 경지는 서로 調和를 이루어 萬物을 化生하는 것이며 이것이 聖人の 경지라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陰陽 和合의 바탕에 陰陽을 파악할 수 없는 경지를 神이라 하였다.

2. 陰陽이 運動 變化하는 原理에 대해서는 損卦 六三爻에서 항상 陰陽의 待對 關係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統合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하였고, 咸卦 九四爻에서는 日月과 寒暑가 往來하여 利가 생기는 神妙함을 설명하였다. 『黃帝內經』에서도 宇宙의 運行과 萬物 生成 과정이 곧 陰陽의 變化라고 하여 天地 自然의 근본 法則임을 밝히고 있다.

3. 陰陽의 相互 關係에 대해서 『黃帝內經』에서는 陽이 밖에 위치하여 秘密하면서 護衛하는 역할을 하고, 陰은 안에 위치하여 巫의 기준을 세우고 平安함으로써 陽을 부린다고 하여 陰陽의 德을 각각 說明하였다. “陽生陰長, 陽殺陰藏.”도 『黃帝內經』의 독특한 陰陽 상호 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節卦의 初九爻가 事物의 通塞을 알고도 戶庭에 나서지 않는 것은 陽密, 陽秘에 해당하며, 豫卦의 六二爻가 돌과 같은 절개를 가지고 決斷하는 것과 大過卦 初六爻가 陽의 過함을 막기 위해 스스로 낮추어 吉한 것 등은 陰의 지킴에 해당한다.

4. 陽이 陰의 견제를 받거나 陰의 德을 지녀서 이로운 경우로, 謙卦 九三爻에서 功이 있어도 자신의 德을 드러내지 않는 恭을 표현하고 있으며, 中孚卦 九二爻도 같은 貞한 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고 좋은 벼슬을 가질 수 있다. 否卦 九五爻는 君主로서 늘 미래를 염려하여 조심하는 象이며, 噬嗑卦의 初九爻도 小人으로 크게 警戒하여 吉할 수 있다. 復卦 初九爻도 獨陽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고 善을 살피 行하는 象이다. 解卦의 上六爻는 이와 반대로 陰이 陽의 영향을 받아 吉한 경우이다.

5. 陽이 陰의 도움이나 통제를 받지 못하면 乾卦 上九爻와 같이 進退存亡의 智慧를 모르는 無知에 빠

져 亢盛하여 凶하게 되니 『內經』에서 “剛與剛, 陽氣 破散, 陰氣乃消亡.”이라 한 것과 같다. 噬嗑卦의 上九爻도 罪惡이 쌓이는 것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에 困卦 六三爻는 陰爻가 孤立되고 스스로 迷惑되어 危險을 自招하는 경우이다.

6. 陽이 陰의 자리를 범하다 正道를 잃은 경우는 鼎卦 九四爻, 益卦 上九爻 등에서 볼 수 있고, 반대로 陰이 陽을 쫓아 자신의 분수에 넘어섬으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는 경우는, 解卦의 六三爻에서 小人이 盜賊을 불러들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7. 『周易繫辭傳』에서는 陽이 陰의 견제를 받거나 陰의 德을 갖추어 吉한 경우와 그 반대의 폐단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하고 있으나, 陰의 경우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또한 『周易繫辭傳』에서는 각 爻의 특성과 위치 관계에 따라 人間事에서 나타나는 여러 미덕과 폐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陰陽論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黃帝內經』에서는 陰陽 간의 다양한 관계 설정보다는 陰陽이 待對의 關係를 유지하며 循環하고 升降하는 運動에 대한 說明이 많은데, 이는 氣의 循環 運動이 醫學에서 보다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1. 권영규. 음양오행의 동의학적 인식. 東西醫學. 1994. 19(3). pp.20-27.
2. 金炳浩. 亞山の 周易講義. 서울. 小康出版社. 1999.
3.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周易哲學史. 서울. 예문서원. 1994. pp.56-57, 86-88.
4. 文載坤. 陰陽五行論의 展開에 관한 研究(I). 哲學研究. 1989. 13. pp.31-33.
5.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p.161, 174, 177, 185, 365, 369, 371, 373, 407, 422, 428, 486, 499, 530, 597, 599, 604. pp.356-358, 380-381, 399-400, 401-405, 410-411,

- 414-415, 418-419, 424-426, 488-489,
532-533, 535-536, 592-595.
6.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8. p.145, 147, 151, 157, 159, 188, 190, 192, 265, 267, 269, 271, 274, 309, 311, 318, 321, 323, 466, 474, 477. pp.8-9, 11-12, 13-14, 21-22, 148-149, 153-155, 162-166, 168-169, 172-176, 178-180, 182-186, 259-263, 456-458, 460-462, 470-471, 542-546, 578-585.
 7. 송갑준. 음양오행설의 사유체계. 人文論叢. 2001. 14. pp.116-117.
 8. 심귀득. 주역에서 음양의 조화에 관한 연구. 2004. 4. pp.6-8, p.12.
 9. 양력 저, 김충렬 역. 주역과중국의학.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p.73-78.
 10. 尹暢烈. 음양오행론의 발생과 그 응용. 2006. 19(4). pp.214-215.
 11. 이정재. 陰陽五行論의 형성과 이의 응용연구. 한국문화연구. 2003. 7. p.185.
 12. 張祐彰. 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의 陰陽體用觀에 대한 試論.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6). pp.73-85.
 13. 崔波, 李愛峰. 試論周易陰陽學說對中醫學的影響. 鄭州大學學報. 1999. 32(2). p.57.
 14. 賀娟. 從周易到內經的陰陽觀念流變.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8. 31(12). pp.811-814.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14, 20, 29, 31, 97, 112. pp.11-12, 16-17, 23-24, 233-234.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36, 50.
 17. 華琮. 周易對中醫理論的影響. 中醫硏究. 2012. 25(6). p.12.

